



한국의 보물, 해인<27>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해인사의 보물들

이덕무(李德懋)가 조선 정조(正祖) 6년(1782)에 지은 「가야산기(伽倻山記)」에는 해인사에 얽힌 이야기들과 함께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불상, 북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해인(海印)이라는 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천장립자(天將笠子, 하늘 장군의 삿갓)이라는 묘한 물건이 있었는데, 화재 때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정도다.

「가야산기」는 해인사에 얽힌 민간전승의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에 알려진 대장경판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과 함께 그 현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덕무의 기록에 해인이 보이지 않는 점은, 그가 생존했을 당시에는 해인에 대한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1780년대 당시에는 해인사와 해인이라는 보물에 대한 상관성이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해인사의 중창기록은 다음과 같다. 해인사는 『가야산(伽倻山) 해인사지(海印寺誌)』(1992)에 따르면 신라 경순왕(敬順王) 4년(930) 무렵에 희랑(希朗)에 의해 중창되었고, 조선 성종(成宗) 19년(1488)에 등곡(燈谷) 학조(學祖)가 160칸의 건물을 3년간에 걸쳐 대규모로 중창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해인사는 조선 숙종(肅宗) 21년(1695)부터 순조(純祖) 17년(1817)까지 무려 7회나 화재를 당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조(英祖) 19년(1743)의 대화재 때에는 수백 칸의 당우(堂宇)가 소실되었고, 순조 17년(1817) 2월의 대화재 때에는 수백 칸의 불당(佛堂)과 심어 방(房)의 요소체가 전소(全燒)되었다고 표현될 정도였다.

영조 19년의 대화재 때에는 능운당(凌雲堂) 일종선사(一宗禪師)가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상성(金尙星, 1708 - 1756)의 도움을 받아 중창했다. 그리고 순조 17년의 대화재 때에는 제월당(霽月堂) 성안대사(聖岸大師)가 도화주(都化主)가 되었고,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김노경(金魯敬, 1766 - 1840)이 사재(私財) 만 냥을 희사하였고, 경상도 70주(州)의 군수(郡守)들로부터 만 냥을 모금하였으며, 기타 화주들의 성금으로 이듬해 6월 21일에 상량(上梁)하였다.

이때 김노경은 그의 아들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 - 1856)를 시켜 대웅전(大雄殿) 건립을 위한 권선문(勸善文, 시주를 권하는 글)과 상량문(上梁文)을 짓도록 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상량문에 『법화경(法華經)』 「화성유품(化城喻品)」의 팔방(八方) 16불명(佛名)과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육방(六方) 불명(佛名)으로 육위사(六偉詞, 상량문의 끝에 부치는 노래)를 지어서 화재를 방지하고 진압하였으므로, 그 뒤로는 해인사에 큰 화재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는 1961년에 해인사 대웅전의 지붕을 수리할 때 김정희가 쓴 상량문이 나오으로써 그 실체가 증명되었다.

따라서 해인이라는 보물로 단기간에 해인사가 지어졌다거나 중창되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의 소박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인사 장건연 기설화와 해인설화는 이야기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며, 다만 '동물보은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장'이라는 화소(話素)를 공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영정

『임진록』에 보이는 해인

그렇다면 도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해인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때는 과연 언제쯤일까? 그리고 해인이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조화력(造化力)을 지닌 물건으로 알려진 것은 과연 어떤 사건과 기록에 연유하는 것일까?

해인사라는 절이 지어진 이후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들은 해인사라는 절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해인이라는 보물을 관념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인의 연원이 오래되었고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이 이야기의 형태로 계속 덧붙여져서 널리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점차 해인이 바닷속에 있는 신기한 도장이라고 믿고 싶었던 민중들의 바람이 조금씩 이야기 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 민중들은 『화엄경』의 어렵고 복잡한 교리체계보다는 해인이라는 보물로 상징되는 불법(佛法)의 위대함을 훨씬 더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어쨌든 구비설화의 형식을 벗어나 기록으로 정착된 '보물로서의 해인 이야기'가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임진록(壬辰錄)』이다.

『임진록』에 비로소 해인(海印)이 보물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책은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고전소설이다. 3권 3책으로 된 것은 목판본이고, 1권 1책으로 된 것은 필사본이다. 한글본으로는 경판본(經板本)과 완판본(完板本)이 있고, 필사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흑룡록(黑龍錄, 이명선본(李明善本)), 흑룡일

기(黑龍日記, 백순재본(白淳在本)), 송실대학본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창서관의 구할자본도 전한다. 『임진록』은 약 40여 종의 이본(異本)이 있다.

『임진록』은 성격상 역사소설에 해당한다. 임진왜란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참담한 패배로 끝을 맺자, 당시 전란을 체험하였던 일반 민중이나 그 후손들이 민족의 수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임진록』에는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와 안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자초하였던 당쟁(黨爭) 등에 대한 뉘우침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임진록』의 내용은 전란을 계기로 지난 역사를 뒤돌아본 분노와 자성(自省)의 민중사(民衆史)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만큼 거의 모든 이본이 역사적 사실을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게 허구화(虛構化)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패배한 패전의 역사를 허구적(虛構的) 전승사(戰勝史)로 꾸며, 쓰러졌던 지난날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 주요한 의도이다. 그러므로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통해 체험되고 전승된 배외적(排外的)인 전쟁설화가 오랜 구전(口傳) 과정을 거치면서 문자로 정착되고, 다시 그것이 전사(轉寫) 과정을 거듭하면서 여러 이본(異本)을 낳아 임진록군(壬辰錄群)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소수의 이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진록』 이본에, 인조(仁祖) 5년(1627) 후금(後金)의 조선에 대한 제 1차 침입인 정묘호란(丁卯胡亂) 때까지 활약한 김응서(金應瑞, 후에 이름을 경서(景瑞)로 고쳤다. 1564 - 1624)와 강홍립(姜弘立, 1560 - 1627)이 등장한다. 따라서 『임진록』은 적어도 1627년 이전에는 창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 정확히 어느 때에 『임진록』이 기록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송실대본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송실대본의 말미에 무자년(戊子年)에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 구개음화(口蓋音化)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표기나 문체로 볼 때, 『임진록』 송실대본이 필사된 연대는 영조(英祖) 44년(1768)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신태수의 「임진록 작품군의 등장인물 성격 연구」(1992)에 의하면 송실대본의 선형 이본이라고 해서 원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진록』의 원본은 늦어도 18세기 중엽 정도에는 창작되었을 것이다. 한편 소재영의 「임진록 연구」(1980)에 따르면 『임진록』의 여러 이본 가운데 능우본(李能雨本) 『임진록』 B와 C는 각각 1909년과 1923년에 필사되었다고 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임진록』의 여러 이본에는 사명당(泗溟堂) 유정(惟政, 1544 - 1610)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임철호의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1989)에 의하면, 이 사명당 설화는 홍만중(洪萬宗, 1643 - 1725)의 『순오지(旬五志)』(1678), 『취혜문고(就惠文庫)』 등에 실려 있는 문헌설화를 원형으로 『갑진록』을 거쳐 『임진록』으로 전래되었다고 한다.*

김택 박사 / 신종교 연구가

- 객원기사 중에서 -

세계의 중심국이 될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안 되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의 열강들이 특별히 한국에 대해 대서특필 보도하리라

天下第一 中原國(천하제일중원국)이 不-一而(불일하이) 되단말가 無知(무지)하다 嘲笑者(조소자)야 멋안다고 조소이나. 至公無私(지공무사) 하나님은 厚薄(후박)간에 다오라네.

成就根本(성취근본) 알고보면 從虛實(종허실)이 出一(출일)이라. 以南以北(이남이북) 是何言(시하언)고

露米相爭(로미상쟁) 必有欣(필유흔)을 四海萬姓(사해만성) 우리兄弟(형제) 同考組之(동고조지) 子孫(자손)으로 그럭해도 怨讐(원수)라고. 우리朝鮮(조선) 禮儀東方(예의동방) 父母國(부모국)을 어이그리 몰나보고 節不知而(절부지이) 共産發動(공산발동) 하나님前(전) 大罪(대죄)로다 精神(정신)양각 하야갈고 兄弟不和(형제불화) 하엿스니 이런冤痛(원통) 또잇넌가. 우리봐도 못다 올일 仰天痛哭罪(양천통곡죄)이네 統合(통합)하소 統合(통합)하소 好時不違(호시불위) 統合(통합)하소 원수악수 짓지말라 알고보면 사람하나 죽인 죄가 참 크구나.

세계 인류의 중심국이 될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안 되겠는가. 무지하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가 천기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조소이나. 공평무사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은 상하 계급 구별없이 누구나 다 부르시네.

만물이 이루어진 근본을 알고 보면 허와 실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남 이북 하는 것이 어찌된 말이고,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다투는 때(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나면 필히 기쁜 일(남북통일)이 있을 것이다. 세계 인류는 곧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조상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그렇게도 원수처럼 되었고.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지국이라 불려 왔고, 또한

인류의 부모국이 될 나라인데 어찌 그리 몰라보는가. 철부지 같은 공산 정권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다. 이 민족이 정신 나가서 제 동포 제 형제를 몰라보았으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울어 봐도 끝이 없는 일이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해 봤자 씻을 수 없는 큰 죄일세. 통합하소, 통합하소. 좋은 시절 거스르지 말고 통합하소. 원수도 악수도 짓지 말라, 알고 보면 사람 하나 죽인 죄가 참으로 크구나.

운다운다 鬼神(귀신)운다 蛇奪人心(사탈인심) 저鬼神(귀신)이 원수 따라 魔鬼(마귀)우네. 사람들 안슬을가 悔改(회개)하소 悔改(회개)하소 人心魔鬼(인심마귀) 물러가면 雪氷寒水(설빙한수) 解結(해결)되고 人心大道(인심대도) 天助來(천조래)라 此堂彼堂(차당피당) 急派(급파)하소 無疑東方(무의동방) 天聖出(천성출)이라 若是東方(약시동방) 無知聖(무지성)커든 英美西人(영미서인)이 更解聖(갱해성)하소. 若是東西(약시동서) 不知聖(부지성)이면 更且蒼生(갱차창생) 奈且何(내차하)오

운다 운다 귀신이 운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사탄 원수 마귀가 슬피 운다. 그러나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던 사실을 몰랐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분하고 슬픈 사실이네.

회개하고 또 회개하소.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던 마귀가 물러나면, 눈과 얼음같이 찬물같이 얼어붙은 악한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대로 사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 정도령이

오시는데. 이 종교 저 종교 따질 것 없이 다 깨쳐 버리소,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방 나라 한국 땅에서 하늘이 내신 성인이 나오느니라. 만약 동방 나라 한국에서 이 성인을 몰라보거든, 영국, 미국 등 서양인이 다시 이 성인에 대한 것을 풀게 해 보소. 만약 동·서양인 모두가 이 성인을 몰라본다면 어떻게 구원방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天然仙中(천연선중) 無疑言(무의언)하니 何不東西解聖知(하불동서해성지) 時言時言不差言(시언시언불차언)하니 廣濟蒼生(광제창생) 活人符(활인부)라 一心同力(일심동력) 攄(합)할슴子(합자) 銘心不妄(명심불망) 깨달오소 冤痛(원통)이도 죽은영혼 今日不明(금일불명) 解冤世(해원세)라 西氣東來(서기동래) 上帝再臨(상제재림) 分明無疑(분명무의) 되오리라 道神天主(도신천주) 이러하니 英雄國(영웅국)서 나오리라

東西一氣(동서일기) 再生身(재생신) 何人善心不和生(하인선심불화생)고 印度佛國(인도불국) 英米露國(영미로국) 特別朝鮮報(특별조선보)라

하늘나라 신천인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 동서양에서 성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때를 아시며 하신 말씀, 말씀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으니 이는 곧 넓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도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이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라는 뜻으로 합할 합(합)자이니, 이 뜻을 명심하고 망령되지 않게 깨달오소. 원통하게 죽은 영혼들도 오늘날 밝게 해원(解冤)하는 세

상이 아니던가? 서방의 기운이 동방으로 돌아 왔으니 상제 하나님 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진리의 신으로 오신 상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열강들이 다 찾아오리라. 천하의 정기를 한 몸에 받아 거둬나시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되면, 어찌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합되지 않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의 열강들이 특별히 한국에 대해 대서특필 보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眞僧下山(진승하산) 急破(급파)하소 佛道大昌(불도대창) 何時望(하시망)고 都是仙中(도시선중) 人間事(인간사)라 自古及今(자고급금) 初樂大道(초락대도) 우리朝鮮(조선) 大昌人(대창인)이 私心(사심)부터 두지 말고 面面村村(면면촌촌) 攄(합)할슴(합)자 和氣春風(화기춘풍) 時來事(시래사)를 無疑君子(무의군자) 大覺年(대각년)을 家家面面(가가면면) 郡郡道道(군군도도) 時來自知(시래자지) 다일러라

이때, 진짜 도를 구하는 스님들은 산에서 내려와 급히 모든 것을 깨어 버리소. 불도가 크게 번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신선이 되는 일 모두가 인간의 일이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 있는 즐거운 대도가 우리 한국 땅에 크게 펼쳐지리라.

사람들이여, 사사로운 마음에 먼저 끌리지 말고 지방 곳곳 할 것 없이 모두가 합할 합(합)자의 이치로 뭉치라. 화평한 기운의 봄바람이 불어 일을 할 때이며, 의심할 바 없는 성현 군자가 나오신 것을 크게 깨달을 때로구나. 집집마다 면면마다 군군마다 도도마다 때가 이르러 정도령이 나온 것을 스스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